

굴곡진 미술사 115년 흔적... 시대상·가치관 오롯이

광복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자료전

주최 **대전일보사·TJB 대전방송·대전시립미술관**

오는 8월 23일까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광복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에서는 미술계 거장들의 대표 작품 외에도 특별한 한가지가 더 있다. 바로 특별전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이 수록된 간행물과,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미술교과서, 교과서에 등장한 삽화 등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자료는 한국근현대사와 함께 걸어온 작가들의 삶을 작품과 자료를 통해 역추적하며 작품 세계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시장에 전시된 자료와 미술 교과서의 변천과정을 살펴봤다.

◇한국 근·현대미술 115년간의 기록=1 전시실에는 해강 김규진의 서예교본(1913년)과 심전 안중식의 화보집 등 희귀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이 중 눈 여겨볼 만한 자료는 행서, 초서, 전서, 해서, 예서, 육서의 글씨체를 쓰는 방법과 필획을 설명하고 습자한 것을 목판본으로 제작한 '육체 필론습자첩'. 김규진이 서예 교본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말의 서양화가로 왕실의 어진화사였던 심전 안중식의 화보집인 '심전화보'도 있다. 안의 내용물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준다. 이종우, 고희동, 심정구 등 19명의 한국화가들에 대한 신문스크랩 자료도 있다. 관람객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내용물이 보기 좋게 펼쳐져 있어 한번쯤 훑어보고 가길 권한다.

백남준이 유준상에게 준 연하장과 동아일보 5056호 부록으로 제작된 청전 이상범 배경 달력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청전 배경 달력은 당시 달력 제작 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2전시실에서는 정기간행물과 미술 교과서를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1930년대부터 만들어진 정기간행물과 1900년대부터 해방이전까지의 미술교과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다. 먼저 문예지부터 보자. 청전 이상범 화백의 건우직녀도가 표지에 수록된 '신생'(1930년대)', 평양에서 격월로 발행된 '조선미술 1호'(1958년)'에는 월북작가 배운성의 '널뛰기'가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장수 문예지로 통권 540호 지령을 기록한 '현대문학' 표지 역시 2전시실에 있는 김환기의 '운월'과 비슷한 형태의 작품이다.

미술교과서는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미술교과서 '정정 보통학교학도용 도화임본'을 시작으로 1912년 일본 문부성이 발행한 '심상소학 신정화첩(新定畫帖)' 등 교과서 208점이 3·4(해방이후부터 1990년대 미술교과서), 5전시실

(2000년대 교과서)로 이어지며 전시되고 있다.

해방이후 눈여겨 볼 교과서는 장면 총리의 동생이자 초기 서울대 미대 학장인 장발이 편저한 '고등새미술'(1960), 이탈리아 에드워드 링글 교수의 데생집에서 선별해 중·고등학교와 사범학교용 교재로 제작된 '데생교본'(1960)이 있다. 1970~2000년대 주요 미술교과서는 표지 색이 점점 화려해지고 인물, 사물, 정물 등 다양한 작품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미술교과서 변천사=우리나라에서 미술교과서는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해 왔을까?

근대 이후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의 변천사는 일반적으로 개화기(1895~1910), 일

김규진 서예교본·안중식 화보집 등 작품세계 뒷받침할 희귀자료 가득 시대별 미술교과서 변천사도 다뤄

제 강점기(1911~1945), 광복과 수립(1945~현재) 이후 등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근대식 미술교육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95년 소학교령에 따라 근대교육제도를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 도화과를 도입하면서 부터다. 미술교과서의 처음 등장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1907~09년에 '도화임본(圖書臨本)' 4권이 발행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미술교과서로 기록되고 있다.

1910년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한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공포와 함께 교과서 편찬사업을 진행했는데 해방이 되기까지 총 4차례 거쳐 조선교육령을 시행했다. 이 시기 교과서는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방이후 주권을 가진 미술교육을 서구

민주주의식 교육의 영향에 의해 전환의 계기를 맞이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첫 국정 교과서는 '미술', '미술과 만들기'였다. 이후 1955년 제1차 교과과정안이 공포되면서 오늘날의 교육과정의 첫 면모를 법령화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부터 기능중심의 임화로부터 학생들의 개성과 정서를 개발하려는 창조주의, 표현주의 미술이 모색됐다. 제1차 교과과정은 1954년 문교부령으로 초·중·고등학교·사범학교에 교육과정 시간을 배정하고 교과과정을 공포했다. 이때 발행한 '미술' 교과서는 모사기술주의 교육을 벗어나 창조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은 조형능력의 활용, 감상능력의 신장에 교과 목표를 두고 미술 교과서가 개정됐다.

1973년에 개정된 제3차 교육과정은 외국의 사조에서 탈피해 한국적인 미술교육 정립을 위한 교과내용을 체계화 하는 것으로 '회화', '조소',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이란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1981년 제4차 교육과정부터 8차 교육과정까지 미술교과서는 각 시대별,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요구를 반영했다. -글- 원세연 기자



“근현대 미술교육 흐름 한눈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



“개화기부터 최근까지 미술 교육의 흐름과 당대의 시대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김달진<사진> 미술자료박물관장은 자신이 평생 수집하고, 모든 자료들이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과 함께 전시되는 것에 뿌듯함을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전시는 초중고 미술교과서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특별전에 전시된 작가들의 아카이브도 함께 전시돼 여타 전시보다 볼거리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관장은 이번 전시를 위해 교과서 200여점과 간행물, 포스터, 연하장 등 자료 50여점 등 총 264점의 자료를 대전시립미술관에 대여했다.

김 관장은 “미술은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서 많은 자료중에 2가지 테마로 정했다”며 “미술교과서를 통해 한국에서 근대적 미술 교육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돼 현재에 이르게 됐는지, 큰 흐름을 짚어보면서 관람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미술교과서는 1893년부터 2014년까지 시대순으로 전시돼 있으며, 자료 하단에 간단한 설명이 첨부돼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였다. 다만 자료의 보존을 위해 유리 진열장에 자료를 들어가 있어 직접 만질 수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김 관장은 “자료를 표지 위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표지만으로도 당시의 시대상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며 “표지를 볼 때는 판형과, 표지 색깔, 편저자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보면 재밌게 관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는 미술교과서 외에도 정기간행물 표지를 장식한 미술계 거장들의 책과 자료, 시대 상황에 따른 미술교과서 삽화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패널 자료 등도 만날 수 있다. 이를테면 1956년에 발간된 '신세계(창평사발행)' 창간호에는 작가 김환기의 삽화가 수록돼 있고 1962년 순수문예지인 '현대문학'은 김환기의 작품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

김 관장은 “이번에 공개한 간행물은 비판성이 강한 야당지 신세계와 현대문학의 창간 표지를 넘나드는 김환기 화백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라며 “김환기 외에도 미술계 거장들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작품속에 어떻게 투영했는지 다양한 사료를 통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